

# 2024년 3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40~04:10 (재방송 매주 월 00:20~00:5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박세진	3/3	[토요와이드] 확 바뀐 한반도정세...푸틴, 김정은에 밸런타인데이 선물? [뉴스프라임] 북한, 러시아 청년축제에 대표단...분야별 인적교류 활발	
임윤주	3/10	[일요와이드] 유권자 현혹 '딥페이크 영상' 논란...적용 법과 처벌은 [뉴스투나잇]"프리랜서 취급" 유튜버 매니저 등 진정 제기	
김홍태	3/17	[토요와이드]성범죄에 무죄 추정 원칙 강조한 대법원...부작용 논란도 [뉴스17]대법 "빌라 공동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은 주거침입"	
안지연	3/24	[토요와이드] 역대 최고 사교육비...잡는다고 하는데 이번 늘봄학교는 [뉴스오늘] 한국 기업 임금 월 400만원 육박...일본 넘어서	

박세진	3/31	[뉴스워치]윤 대통령 "북, 위협으로 굴복 생각하면 오산"...유족편지에 눈물 [뉴스워치]천안함 함께 둘러본 윤 대통령·한동훈...갈등설 진화
-----	------	------------------------------------------------------------------------------------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3/3(일)	박세진	출산율 감소와 병사 봉급 인상 여파로 군간부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군사관후보생 ROTC의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0년 2.7대 1, 지난해 1.8대 1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군의 근간인 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국방부가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ROTC 후보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지원율 제고 차원에서 학군장교들의 연간 해외	저출산 심화로 인해 군병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군 간부 유인책 증대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음번에 해당 아이টে를 다룰 경우 주신 말씀을 적극 반영해 좀더 충실한 리포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연수 인원을 기존 40여 명에서 160여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시 필기 시험을 폐지하고 공수훈련 기회도 기존 100명에서 올해 120명, 내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p> <p>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감하고 있는 군 간부 지원율은 장기적으로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연간 3천 여명에 달하는 학군장교 수요에 비춰볼 때 ROTC 지원율 감소는 군 간부의 질적 저하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를 통해 정부의 장려 정책을 알림으로써 군 간부 지원율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p> <p>다만 국방부의 정책 발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도 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국방부가 처우 개선 등 군 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학군사관후보생 및 대학생들의 인터뷰와 전문가 의견 등을 함께 다루며 이번 조치의 기대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2024 3/10(일)	임윤주	<p>국민 판다였던 푸바오의 중국행을 앞두고 공개된 마지막 관람일에 대해 보도한 &lt;뉴스14&gt; 살펴보겠습니다.</p> <p>푸바오는 2016년 한중 친목으로 한국으로 보내진 두 마리의 판다 사이에서 태어나 국민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평론가는 푸바오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첫 판다로, 특히 2020년 코로나 시기에 탄생해 국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인기의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쉽지만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인데도, 이는 워싱</p>	<p>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이 있다 보니 내용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좀 더 충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p>

		<p>턴 협약을 기반으로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된 판다의 보호를 위한 방침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달 정도 특별 케이지 적응 훈련 등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p> <p>푸바오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는데도, 평론가는 방문객이 5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관련 유튜브 구독자와 콘텐츠가 증가하고 관련 상품의 판매량도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 판다 외교의 상징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다를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호국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p> <p>푸바오라는 판다가 국민적 인기를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설명해 주어 흥미로운 대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의 판다 외교가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외교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p> <p>이러한 경제적 효과나 외교적 의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시간 등의 제약이 있었겠지만, 대담 제목이 ‘판다 신드롬이 남긴 것’으로 강조한 것에 대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p>	
2024 3/17(일)	김홍태	<p>지난 9일 뉴스13에서는 인공지능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라는데도,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HBM은 제작에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만, SK하이닉스가</p>	<p>[김중력] 불붙은 AI 반도체 전쟁...인력·기술 유출 우려 인공지능 발달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합뉴스TV도 이와 관련해 글로벌 업체들의 기술 경쟁, 인력 유출 문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하게 보도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첨단 기술 보호 중요성과 관련 제도 및 법적 대응책을 주목해 보도했으면 더</p>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 등이 뛰어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기술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데요, 실제로 최근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마이크론으로 옮긴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앞으로 보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짚으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기회와 문제점을 균형 있게 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인력 육성과 보호, 연구 개발 투자의 확대 등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방송을 통해 논의되면 좋을 것입니다.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꾸준히 보도해 왔는데, 관련 협력 모델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목하고 한국 반도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 등도 조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3/24(일)	안지연	지난 해 교육부는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급증 현상을 바탕으로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킬러문항 배제나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토요일이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오히려 이 방침이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의 기대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을 더욱 부추긴	[안채린] 역대 최고 사교육비...잡는다고 하는데 이번 늘봄학교는 말씀 주신대로 적절한 시기 사교육비 경감 대책 그리고 3월부터 시작된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 보도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교육 경감을 위해 발표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해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사교육 정책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보도에서는 교육 현장에 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사교육 절감 정책의 실효성을 꼬집었는데, 실제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했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새 학기를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과 평가를 덧붙이는 등 실 소비자의 목소리에 집중된 보도가 되었다면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더 와닿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학생, 학부모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4 3/31(일)	박세진	연합뉴스 TV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 큰 댓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적당한 위협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군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전시된 천안함을 둘러보고,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 헌화와 참배를 했으며, 두 사람이 “영웅을 모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중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의 취지에서 벗어난 보도 내용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을 둘러보는 장면에서 기자는, 대통령의 국가	주신 말씀 이해합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전 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보이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해수호의 날 행사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도 큰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행사 후 두 사람이 별도로 만남을 갖는 장면을 만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는 그동안 대북 문제에 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히 전달해 왔습니다. 주신 말씀 잘 감안해 앞으로 보도에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p>안보 및 보훈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기 보다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동행에 초점을 맞춰 정부와 국민의힘 간의 당정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이나 군인이 아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정하며 행사의 본질에서 벗어나 대통령 및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만 치중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향후에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다뤄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4. 03. 03.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4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북한이 4월에 있을 우리나라 총선 전까지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약 30차례의 도발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10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한주 간 북한의 동향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24일 한반도 브리핑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교류 현황을 짚어 봤습니다. 기사는 북한이 지난 2년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주는 댓가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톡톡히 봤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최고급 방탄차를 선물한 것은 앞으로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세계청년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전하며, 올해 들어 북한과 러시아의 인적교류가 부쩍 늘어난 것은 상반기에 이뤄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의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에서도 북한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신장관은 3차례의 시도 끝에 궤도에 오른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궤도만 돌고 있다고 분석하며, 4월 이전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등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북한이 도발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북에서 부는 바람 즉, '북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4월 총선을 전후로 북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연합뉴스TV가 북한과 관련된 여러 소식을 전하며 그 배경을 살펴보고 의미를 평가해봄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련의 보도를 통해 분석과 전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행보와 도발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충남 서산비행장 주변 등 총 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117배로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의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 비행장 근처 주민 주거 지역과 겹치는 보호구역 약 8,700만 평과 접경지역 및 민원지역 1천 600만평 규모이며, 이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 인근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주민 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에 대해 관련자 인터뷰를 포함해 그 효과를 전망해 본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해제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치중해 사안을 다룬 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군사시설 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시설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해제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 시에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군사보안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결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출산을 감소와 병 봉급 인상 여파로 군 간부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군사관후보생 ROTC의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0년 2.7대 1, 지난해 1.8대 1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군의 근간인 간부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ROTC 후보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

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지원을 제고 차원에서 학군장교들의 연간 해외 연수 인원을 기존 40여명에서 16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시 필기 시험을 폐지하고 공수훈련 기회도 기존 100명에서 올해 120명, 내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감하고 있는 군 간부 지원율은 장기적으로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연간 3천 여명에 달하는 학군장교 수요에 비춰볼 때 ROTC 지원율 감소는 군 간부의 질적 저하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를 통해 정부의 장려 정책을 알림으로써 군 간부 지원율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방부의 정책 발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도 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국방부가 처우 개선 등 군 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학군사관후보생 및 대학생들의 인터뷰와 전문가 의견 등을 함께 다루며 이번 조치의 기대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 3천명이 넘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매년 2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했고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연간 입국자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로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7월부터 시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가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국민으로 포용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로 출범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특별위원회의 명칭이었습니다.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국민통합위원회는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가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서 기사는 새롭게 등장한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국민통합위원회의 용어 설명을 전달하는 등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꼭지의 보도에서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

를 여러 개 사용해 혼동을 준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보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북배경주민 등의 용어가 번갈아가며 사용되었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평가됩니다. 용어의 선택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03. 10.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64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보자를 고려해보고 계실텐데요. 다양한 뉴스들을 살펴보실 때, 주의할만한 요소 중 하나로 연합뉴스TV에서 보도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와이드> 보도입니다.

보도는 이번 총선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전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AI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의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지난 1월 29일 이후 100여건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습니다. 딥페이크 조항이 들어간 개정 공직선거법 내용은 처벌 수위가 높고 면책 예외도 거의 없습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선거일 기준 90일 동안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물론 선거일 90일 전이 아닌 평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누군가를 낙선시키려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일 90일 전이 아니고 허위사실이 없었더라도 가짜 표현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미 다양한 사회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악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본 보도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한편, 실제 유명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예시로 보여주기도 하고 제작되는 과정도 자료화면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자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법안을 행위 단계별로 설명하여 법안을 인지하기 쉬웠을 뿐 아니라, 보도가 전하고자 하였던 관련 법안의 강도도 잘 전달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기술 뿐 아니라, 새로운 직업들인데요. 유튜브 매니저들에 대해 보도한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매니저 등이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무사모임 등 노동단체는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들이지만 프리랜서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독자 146만 명을 둔 유튜버의 매니저로 일한 기자회견 참가자는, 촬영 중 허리가 골절됐지만 유튜버가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종 사회적 변화 속도 대비 정책과 제도 정비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영상 스트리머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관련하여 꾸준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도는 비록 짧은 단신 보도였지만,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도 연합뉴스와 함께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2%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달 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하락해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6%포인트 앞섰고, 인천·경기에선 민주당이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전·세종·충청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한 달 전보다 20%포인트 떨어졌고,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서도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정당에 대한 질문으로는 국민의힘은 한달 전 조사와 같았지만 민주당은 줄었고,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국민의미래가 선두를 달렸습니다. 양당 가운데 공천을 더 잘하는 정당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4%는 국민의힘을, 23%는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추이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보도에서 비교하며 언급되었던 2월 조사 결과 외에도 1월 조사 결과까지 함께 자료화면으로 제시되어 최근 3개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용이했습니다. 또한, 이는 연합뉴스TV가 현재 정례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로, 보도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별 표심 변화도 비슷한 그래프를 제공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지역에서 변화가 있었고, 보도에서도 지난 달 조사와 비교하여 현재의 수치를 설명하였기에 그래프가 제공되었다면 더 의미가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자이자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있어서는 수치 중심의 보도 외에도 전문가의 해석형 보도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대화를 진행

한 <뉴스1번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답은 대통령 국정지지도 평가 결과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지난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20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둔 민생 행보, 영부인 논란에 대한 안정적 관리 등을 상승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크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지속될 경우 국민이 입는 피해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 평가의 배경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새로운 정당의 지지율은 긍정적인 단어 자체가 주는 효과인 '위딩 이펙트'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각 정당의 긍정 부정 평가 이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정당, 비례대표 투표 정당 등의 결과에 대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대답을 시작하기 앞서 앵커는 여론조사의 조사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는데요, 추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곳까지 언급하는 등 간략하지만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 설명하여 여론조사 결과 및 보도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문가는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70% 이상 나타났다는 뜻은 사실상 대부분이 찬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반 시청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접했을 때, 어느 정도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기관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대답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른바 국민 판다였던 푸바오의 중국행을 앞두고 공개된 마지막 관람일에 대해 보도한 <뉴스14> 살펴보겠습니다.

푸바오는 2016년 한중 친목으로 한국으로 보내진 두 마리의 판다 사이에서 태어나 국민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평론가는 푸바오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첫 판다로, 특히 2020년 코로나 시기에 탄생해 국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인기의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쉽지만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인데요, 이는 워싱턴 협약을 기반으로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된 판다의 보호를 위한 방침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달 정도 특별 케이지 적응 훈련 등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푸바오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는데요, 평론가는 방문객이 5배 증가했을 뿐 아니

라, 관련 유튜브 구독자와 콘텐츠가 증가하고 관련 상품의 판매량도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 판다 외교의 상징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다를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호국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푸바오라는 판다가 국민적 인기를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설명해주어 흥미로운 대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의 판다 외교가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외교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효과나 외교적 의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시간 등의 제약이 있었겠지만, 대담 제목이 '판다 신드롬이 남긴 것'으로 강조한 것에 대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03. 17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642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대법원이 성범죄 관련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보도했으며, 공동 현판문이 열려 있는 다세대주택이어도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과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경찰의 탐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9일 토요일이드소식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성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년전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성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른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6년 전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강조하면서, 소위 '피해자다움'의 잣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는 판례를 내렸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거나, 사건 전후의 태도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경계했었습니다.

하지만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소부에서 지난 1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후 이 판례를 인용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며,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법원이 피해자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능동적으로 이성 교제를 한다는 점 등을 판결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천대엽 판결 이후 성범죄의 가해자 중심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현재의 판결 경향에 대해 매우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는 변호사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천대엽 판결'이 여성 대법관이 없는 소부에서 선고됐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인데, 여성 대법관이 더 늘어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으로,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된다고 하면서도,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상세히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성범죄 판단은 그 판단 여부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사회적인 파장도 크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에 많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위 1월 대법원 판결 후에 무죄선고가 나오고 있다는 점 외에도, 그러한 무죄가 어떠한 점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로 무죄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당해 판결선고 이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도 파악해 보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몰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의 성범죄 판단 관련하여 판결의 흐름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해자 중심주의로 회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균형 잡힌 판결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전문가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 번은 짚고 갈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7일 뉴스17에서는 공동 현판문이 열려 있는 다세대주택이어도, 무단으로 들어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안씨는 2021년 6, 7월경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선 벌금형,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판단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있는지 판단을 위해서 건의 내용을 조금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모씨는 2021년 6, 7월경 오후 9시나 10시 경에 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건물 입구를 통해 공동현관에 들어가, 전 여자친구 집이 있는 2층으로 가서 문 밖에서 집안 내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집 현관문에 일정한 문구가 적힌 마스크 또는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 범행 당시 전 여자친구는 안씨가 집 앞에 온 사실을 눈치채지는 못했다는데, 대법원을 이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특별한 잠금장치가 없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을 바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지 여부를 판단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난 9일 뉴스13에서는 인공지능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라는데,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HBM은 제작에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만,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 중국 창신메모리 등이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기술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데, 실제로 최근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마이크론으로 옮긴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일이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A씨가 SK하이닉스에서 얻은 정보가 마이크론으로 넘어갈 경우 SK하이닉스의 사업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 임원은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빼내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지으려다 적발되기도 했는데,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이종환 교수는 기술 유출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양형 기준을 강화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달 말 이를 확정

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의 수요 급증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계기입니다. SK하이닉스의 양산 성공과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 인력 유출과 기술 도난의 위협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법원 판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치는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준비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앞으로 보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짚으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기회와 문제점을 균형 있게 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인력 육성과 보호, 연구 개발 투자의 확대 등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방송을 통해 논의되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9일 토요와이드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정교하게 만들어 낼 수 있고, 누구나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경찰의 탐지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뉴햄프셔주 민주당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음성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언뜻 듣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와 똑같지만, 사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지난해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가짜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고 하면서 직접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 약 1분간 아무 말이나 녹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기자의 목소리를 자동으로 학습하고, 학습이 끝나면 원하는 문장을 쓰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진짜목소리와 가짜목소리의 톤이 매우 유사해 자세히 듣지 않으면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방해나 피싱 범죄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탐지 기술을 개발해 범죄 단속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윤상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은 이번엔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한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이뤄져 한국인에 대한 탐지율을 크게 제고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 탐지율은 약 80%에 달하지만,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해 증거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그 악용 가능성은 현대 사회의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이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명예 훼손, 범죄 행위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

회적, 윤리적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보도에서 소개된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진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범죄 예방과 수사에 있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지율이 100%가 아니라는 점은 아직 부족한 점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의 대응에 기술적인 발전과 법적인 대응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은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그에 대응하는 기술 발전을 잘 보여주었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윤리적인 논의와 사회적인 논의를 더 깊이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접근도 필요한데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책임 있는 사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03. 2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43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지난 해 교육부는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급증 현상을 바탕으로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킬러문항 배제나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토요와이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킬러문항을 배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오히려 이 방침이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이 12조 4천억 원에 달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과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사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의대 정원 확대로 입시업계에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전교조 관계자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교육부의 기대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을 더욱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교육 경감을 위해 발표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해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사교육 정책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보도에서는 교육 현장에 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사교육 절감 정책의 실효성을 꼬집었는데, 실제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했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새 학기를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과 평가를 덧붙이는 등 실 소비자의 목소리에 집중한 보도가 되었다면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더 와닿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학생, 학부모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임금과 일자리에 대한 통계 지표가 인용되는데요, 그만큼 경제의 안정에 이 두 가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 상황은 90년대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를 볼 수 있는데요,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고령화는 경제 상황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임금 상승 폭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지난 18일 뉴스오늘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서는 한국 경영자총협회가 2002년과 2022년 한국과 일본 간 임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양국 10인 이상 기업의 상용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 조사 결과 2002년 한국은 179만 8천 원, 일본은 385만 4천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한국이 399만 8천 원으로, 379만1천 원의 일본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지난 20년 새 일본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지난 20년 간의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임금 총액 비교를 통해 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 상승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는 만큼 이 보도는 단순히 분석 결과만을 전달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 근로시간 대비 임금 인상률의 차이 등이 언급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꾸준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에는 결과를 둘러싼 원인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모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목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얼마 전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친구를 하자며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 전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9일 뉴스현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발생 과정과 범죄 수법,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있는 여아에게 접근한 남성이 아이의 핸드폰 번호 알아내 자신과 친구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초등학생은 이런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이 남성이 성범죄자임을 확인한 후 경찰에게 신고를 하

게 된 것이라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아이에게 접근한 정황이나 또 다른 형태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 CCTV 확인을 통해 다른 여죄의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경찰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접근금지 신청 등 또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남성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수범에 대해 엄벌을 청하는 상황이며 만약 처벌하지 않는다면 실제 납치 등 위험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미수범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지만 미수범이기 때문에 벌금형까지도 내다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답을 통해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건의 발단부터 향후 처벌 가능 범위까지 짚어주어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했다는 점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미수범일지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답의 경우 자막을 통해 전문가의 설명이나 의견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한 줄로 정리해줘 시청자가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번 대답에서는 전문가의 설명보다 자막이 먼저 송출되기도 해 듣는 내용과 보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막을 송출할 때 이런 점을 잘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일부 공무원은 감정이 격앙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20일 오후 12시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 기관 TF회의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부처합동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은, 오프라인을 막론한 악성 민원의 증가는 결국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저하와 함께 이직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보도를 통해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도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과제 중심으로만 전달을 했다는 점에서 아쉬게 느껴집니다. 각각의 과제의 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언급해주었다면 민원 공무원을 어떤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안부의 민원처리법 등의 개정 사례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개선안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지 등을 분석했다면 보도의 내용이 보다 풍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신, 구 대비 등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이 다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4. 03. 31.방송):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4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제 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로 지난 2016년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55명의 서해수호 영웅들을 추모하는 한편, 기념사를 통해 북한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 큰 댓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적당한 타협으로 얻는 가짜 평화는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군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전시된 천안함을 둘러보고,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 헌화와 참배를 했으며, 두 사람이 “영웅을 모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중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보도를 구성하며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짚어보는 긍정적인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피격된 천안함을 둘러보는 모습과 유가족의 편지 낭독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함께 전하며 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와 전사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잘 표현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행사의 취지에서 벗어난 보도 내용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을 둘러보는 장면에서 기자는, 대통령의 국가안보 및 보훈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기 보다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동행에 초점을 맞춰 정부와 국민의힘 간의 당정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이나 군인이 아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정하며 행사의 본질에서 벗어

나 대통령 및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만 치중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향후에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다뤄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보도 전문 채널로 대체로 무겁고 진중한 콘텐츠를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채널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도 함께 편성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재구성>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현장의 재구성>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탱크부대를 방문한 소식을 다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6일 현장의 재구성에서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탱크 등을 동원한 대항훈련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직접 탱크를 운전하고 북한군을 격려하는 김정은의 모습이 담겼고, 조선중앙통신 앵커의 보도 발언과 자막을 활용해 영상에 재미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공개된 탱크의 외관을 분석해 러시아의 기술이 전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후반부에는 자유의 방패 훈련에 참가한 우리 군 전차의 연합훈련 모습과 훈련에 참가한 장병의 인터뷰를 전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은 경직되고 무거운 내용만 다룬다는 편견을 깨게 해주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막과 음성을 적절히 활용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노력과 남북 전차부대의 훈련 모습을 비교 및 대조하는 구성이 돋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스낵 컬처, 스낵 콘텐츠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다루는 주제에 따라 재미와 흥미 요소를 반영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대 방문은 국민 모두가 경계심을 갖고 그 의미를 짚어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가볍고 재미있게 영상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일본은 국권침탈, 납북자 문제 등으로 인해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최근 양국 간 정상회담 논의가 이뤄지는 등 관계 개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주장하며, "두 나라 관계를 풀고 가까운 이웃이 되어 지역의 평화와 안

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일본이 전략적 선택을 할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후인 27일에 또 다른 담화를 통해 "일본 측과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로 김여정이 기시다 총리의 제안을 밝힌 당일 있었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언급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회담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는 보도를 마무리하며 북한과 일본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기 갈리는 탓에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북한과는 거리를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의 관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 TV가 일련의 보도를 통해 시의성 있게 해당 이슈를 전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 이번 정상회담 논의의 배경과 의미가 함께 다루이지 않은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상회담의 성사와 실패를 넘어 북일 양국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 논의를 주고 받았는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한미일 간 외교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북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커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후속조치로 주일미군에 작전통제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주일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갖는다면 주한미군과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에서 한미, 한일, 미일로 구분되는 별도의 공조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주일미군 개편과 북일 정상회담 논의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북한은 일본을 통해 체재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전략이 맞아 떨어져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이 보도에서 함께 다루진다면 시청자들이 해당 이슈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p>2024년 3월 3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박세진 시청자평가원 평안 ERICA 홍보사업(ERICA) 교수</p>	<p>2024년 3월 10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언어교육연구소 연구생</p>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p>2024년 3월 17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김홍태 시청자평가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원)</p>	<p>2024년 3월 24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p>
일시/장면설명	
<p>2024년 3월 31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박세진 시청자평가원 평안 ERICA 홍보사업(ERICA) 교수</p>	